

# <디폴트옵션 도입에 따른 긴급 서베이> 3050 직장인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선택의 5가지 특징

2022. 11. 3

박영호 연구위원

## CONTENTS

### I. 퇴직연금 운용방향의 새로운 설정, 디폴트옵션

### II. 조사 대상 직장인의 DC형 퇴직연금

1. 조사 대상 개요 및 DC형 퇴직연금 현황
2. 직장인의 디폴트옵션 이해도

### III. 디폴트옵션 선택에서 나타난 5가지 특징

1.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투자형 선호 우세
2. 자산배분 및 위험분산 기능 선호 큰 편
3. 적극적 운용·관리 성향/월소득 800만원 이상, TDF 및 BF 선호
4. 소극적 운용·관리 성향/월소득 300만원 미만, 원리금보장형 선호
5. 운용·관리 편의성 및 수익률 개선 기대

### IV. 결론

## < 요약 >

-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운용을 방치할 때 사전지정한 운용방법을 자동 실행하여, 개인의 퇴직연금 운용 및 관리 부담을 효과적으로 대행하도록 하는 제도임.
- 본격적인 디폴트옵션 지정(2022년 11월 이후)에 즈음하여,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 직장인을 대상으로 디폴트옵션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를 시행했음.
- 디폴트옵션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31.3%(10명중 3명)로, 상품 선택이 임박했음에도 디폴트옵션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음.
- 디폴트옵션의 핵심인 상품 선택 의향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은 5가지로 정리됨.
  - ①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투자형 선호 우세: 디폴트옵션 선택비중은 투자형 60%, 원리금보장형 40%(조사대상 직장인의 퇴직연금 내 평균 편입비중(각각 36%, 64%)과 상반됨)
  - ② 자산배분 및 위험분산 기능 선호 큰 편: TDF(Target Date Fund)와 BF(Balanced Fund) 및 원리금보장상품+펀드 포트폴리오의 디폴트옵션 선택 비중이 45.5%로 높은 편
  - ③ 적극적 운용·관리 성향 및 월소득 800만원 이상 근로자는 TDF 및 BF 선호: 同 속성 보유 근로자의 40~45%가 TDF 및 BF를 디폴트옵션으로 선택(응답자 평균 선택률 31.5%)
  - ④ 소극적 운용·관리 성향 및 월소득 300만원 미만 근로자는 원리금보장형 선호: 同 속성 보유 근로자의 50~61%가 디폴트옵션으로 원리금보장형 선택(응답자 평균 선택률 40.1%)
  - ⑤ 운용·관리 편의성 및 수익률 개선 기대: 디폴트옵션 시행으로 인해 운용 편의성, 퇴직연금 수익률, 운용현황 파악의 편의성이 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 / 투자상품을 디폴트옵션으로 선택한 이유는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이 1순위
- 디폴트옵션 실행으로도 퇴직연금의 장기운용 방향 수정 및 수익률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도 적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자들은 장기투자, 자산배분 및 투자 위험 관리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디폴트옵션을 신중하게 선정해야 함.
- 디폴트옵션이 퇴직연금의 장기운용 방향을 정립할 수 있으려면 디폴트옵션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한 금융업계의 가입자 교육 강화가 시급하게 요구됨.

## I. 퇴직연금 운용방향의 새로운 설정, 디폴트옵션

- 자율주행이 사람을 대신하여 복잡한 운행환경에 대응한 고도의 운전을 시행하듯 전문성이 요구되는 퇴직연금의 운용·관리를 대행하기 위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 제도)를 도입했음.
- 디폴트옵션은 가입자의 운용방치 시 사전에 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이 자동운용 되도록 하는 것으로, 운용편의성, 자산배분 및 재조정(rebalancing), 위험관리 등과 관련한 전문적 운용능력, 운용비용 부담 최소화 등의 효율성을 잘 갖춰야함.
- 디폴트옵션은 첫 상품승인 완료 후 2022년 11월부터 준비된 사업장별로 시행하며, 이 때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는 소속 직장 규약에 반영돼 가입한 금융회사로부터 제공받게 되는 디폴트옵션 상품들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해야 함.
-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아우르는 상품 유형 중 어떤 상품을 디폴트옵션으로 지정하는가에 따라 디폴트옵션을 적용했을 때의 퇴직연금의 위험관리, 운용성과 등을 좌우할 특성이 상이하어, 디폴트옵션 상품 결정이 그리 단순하지 않을 수 있음.
- 디폴트옵션 실행에 즈음하여 해당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디폴트옵션 이해가 충분한지 점검하고, 디폴트옵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상품 선택 의향에서의 특성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긴급하게 서베이를 시행함.
  - 디폴트옵션을 선택해야 하는 DC형 퇴직연금 가입 직장인 중 1,200명을 선정해 서베이를 시행하여, 디폴트옵션에 대한 이해 수준을 긴급 점검하고, 다양한 퇴직연금 운용 및 관리 현황을 배경으로 어떻게 디폴트옵션을 선택하는지 그 특성을 파악해 봄.

### <직장인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인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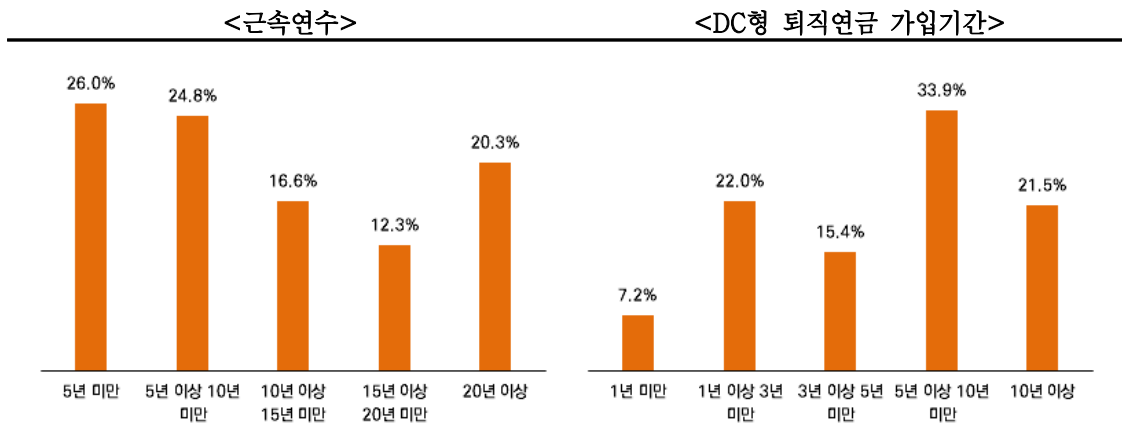
구분	내용
조사 대상	30~59세 직장인 1,200명(30대/40대/50대 각 400명) - 서울/수도권, 6개 광역시 및 세종시 거주자 - 100명 이상 근무 직장 근로자(공무원 제외) - 현행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조사 기간	2022년 9월 22일~10월 4일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웹/모바일 조사
조사 내용	- 가입자의 DC형 퇴직연금 운용 및 관리 현황 - 디폴트옵션에 대한 이해도 점검 - 디폴트옵션 상품 선택 지형 및 특성 파악

## II. 조사 대상 직장인의 DC형 퇴직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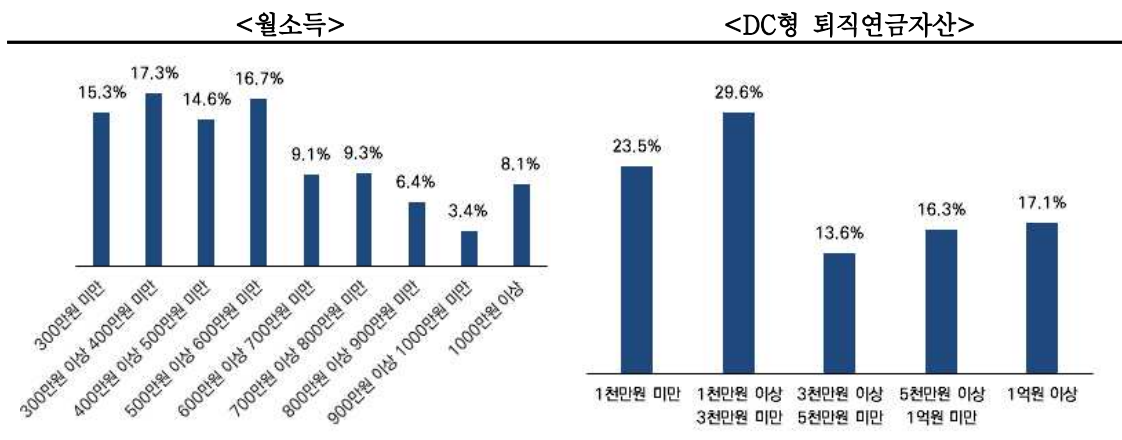
### 1. 조사 대상 개요 및 DC형 퇴직연금 현황

- ◎ 조사대상인 30~50대 DC형 퇴직연금 가입 직장인의 월평균 소득은 558만원이며, 연령대별 평균은 30대 435만원, 40대 585만원, 50대 656만원 수준임.
- ◎ 평균 근속연수는 11.8년이며 DC형 퇴직연금 가입기간은 평균 6년으로, 퇴직연금 자산은 평균 4,666만원으로 파악되었음.
- ◎ 퇴직연금을 가입한 금융회사(사업자)는 은행 55.3%, 보험 16.3%, 증권 28.4% 씩으로 분포되어 있음.

<도표 1> 조사대상 직장인의 근속연수 및 퇴직연금 가입기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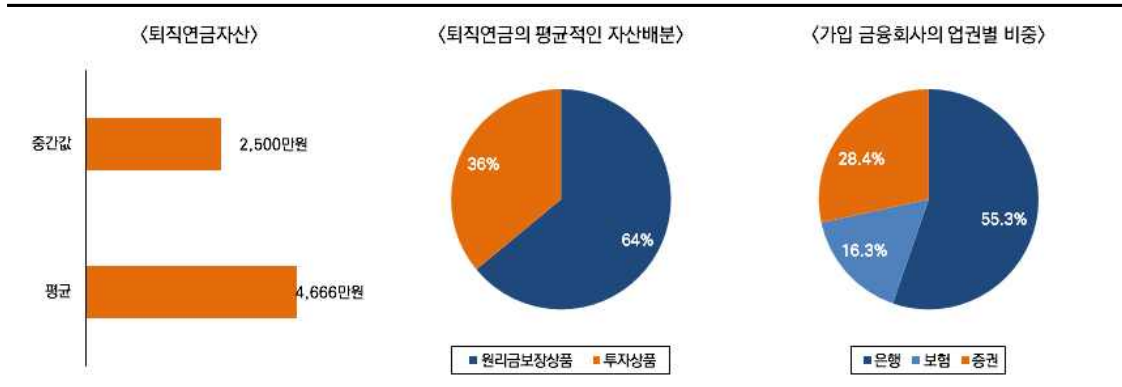


<도표 2> 조사대상 직장인의 월소득 및 퇴직연금자산 분포



- ◎ 퇴직연금의 원리금보장상품 및 투자상품(실적배당상품) 운용비중 평균은 각각 64%, 36% 썩이며, 운용중인 상품수는 평균 3.5개임.

<도표 3> 조사대상 직장인의 DC형 퇴직연금 주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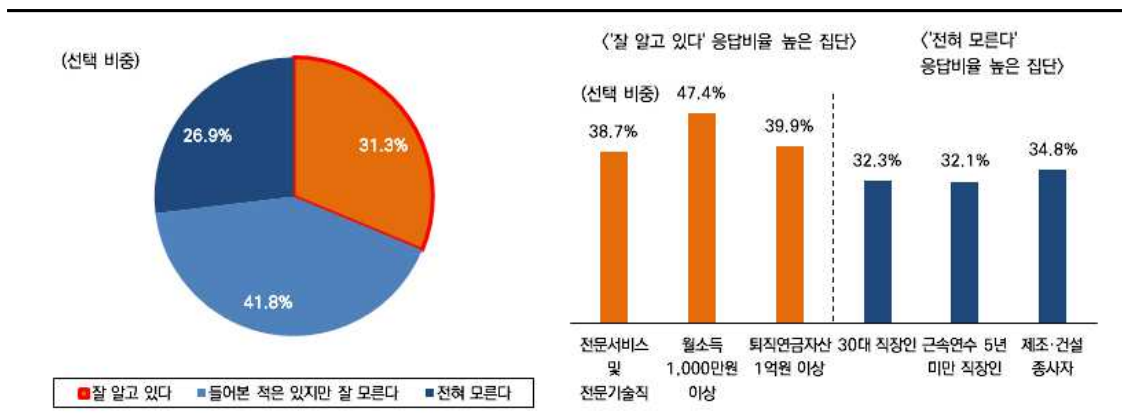


## 2. 직장인의 디폴트옵션 이해도

-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DC 가입 직장인은 조사대상 인원 1,200명 중 375명으로 31.3% 수준이며, 나머지 68.7%는 디폴트옵션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을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임.

- 금융회사 안내 또는 언론보도를 통해 디폴트옵션 도입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는 41.8%, 디폴트옵션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경우는 26.9%임.
- 연초 이후 디폴트옵션 도입 일정 및 내용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속 배포되었음에도 현재까지 해당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디폴트옵션 제도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편으로 판단됨.

<도표 4> 조사대상 직장인의 디폴트옵션 이해도



### Ⅲ. 디폴트옵션 선택에서 나타난 5가지 특징

- 디폴트옵션 선택 기준과 디폴트옵션 지정 및 실행을 통해 기대하는 개선점을 알아보고, 어떤 디폴트옵션 유형을 어떤 이유로 선택하는지 파악해 보았음.
- 디폴트옵션 선택과 관련한 서베이 결과, 1) 투자형 상품의 디폴트옵션 지정을 많이 선호하며 2) 자동 자산배분 기능 활용과 함께 3) 퇴직연금 운용 편의성 제고 및 수익률 개선을 주로 기대하는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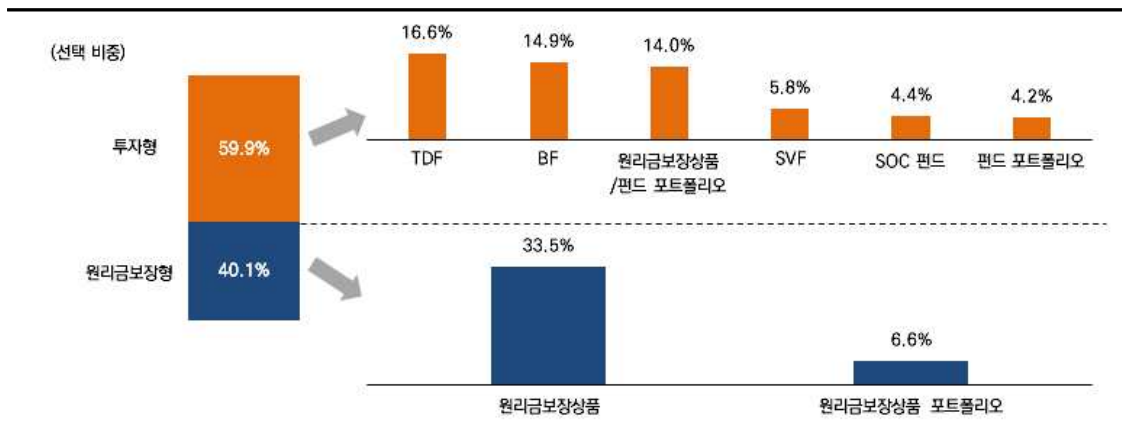
#### 1.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투자형 선호 우세

- 디폴트옵션 상품 유형별 선택 비중은 투자형(실적배당형)과 원리금보장형이 60 대 40 정도로 나타나 투자형을 디폴트옵션으로 지정하겠다는 의향이 우세했음.

– 4개 유형의 단일 펀드 상품과 펀드와 원리금보장상품을 혼합한 포트폴리오 및 펀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등 투자형 상품을 선택한 비중은 총 59.9%이며, 원리금보장상품 및 원리금보장상품으로만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선택한 비중은 총 40.1%였음.

– 투자형에서는 자산배분형 단일 펀드인 TDF 및 Balanced Fund의 선택 비중이 높았으며, 원리금보장형에서도 포트폴리오보다는 단일 상품 선택 비중이 월등히 높았음.

<도표 5> 디폴트옵션 상품의 유형별 선호도



◎ 60% 수준인 투자형 상품 선택 비중은 2021년말 현재 DC형 퇴직연금 전체의 실적배당상품 편입 비중인 20.7%(원리금보장상품 79.3%)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조사 대상 직장인의 DC형 퇴직연금의 실적배당상품 평균 편입 비중인 36%도 크게 상회하는 수준임.

－ 디폴트옵션으로 투자형 상품을 지정하겠다는 의향이 많은 것은 현재의 퇴직연금 운용 방향을 디폴트옵션 지정을 통해 투자 중심으로 바꾸길 희망하는 가입자가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판단됨.

<도표 6> 현재 운용 비중보다 디폴트옵션 선택 시에 투자형 선호도 월등히 높아

	디폴트옵션 상품 유형 선택 비중	조사 대상 직장인 퇴직연금의 평균 편입 비중	DC형 퇴직연금 전체의 상품 편입 비중(2021년말)*
투자형(실적배당형)	59.9%	36.0%	20.7%
원리금보장형	40.1%	64.0%	7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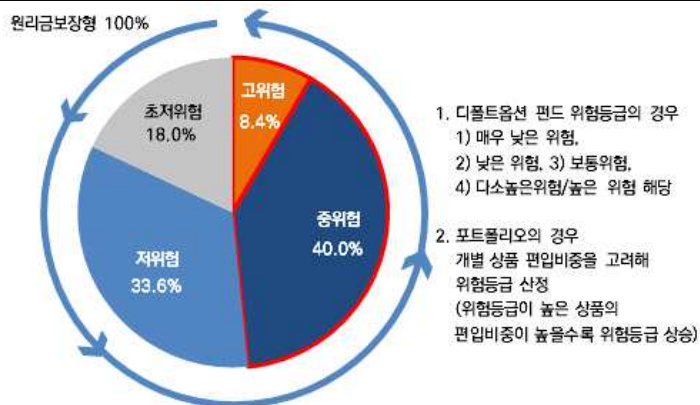
\*: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 디폴트옵션 상품 선택 의향을 위험등급별로 살펴보면 중위험 이상(중위험 및 고위험)을 선택한 비중이 48.4%(중위험 40%, 고위험 8.4%)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니즈가 적지 않다고 판단됨.

－ 1) 중위험과 2) 고위험 등급의 경우 각각 1) 보통위험, 2) 다소높은위험 및 높은 위험으로 분류된 단일 펀드 상품이 해당되며, 포트폴리오는 위험등급이 높은 단일 펀드 상품의 편입 비중이 대략 7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음.

－ 중위험 이상 위험등급의 선택 비중이 절반에 가깝다는 것은 중위험·중수익 이상을 추구하도록 퇴직연금을 운용하고자하는 니즈가 적지 않은 편임을 시사한다고 판단됨.

<도표 7> 디폴트옵션 상품의 위험등급별 선택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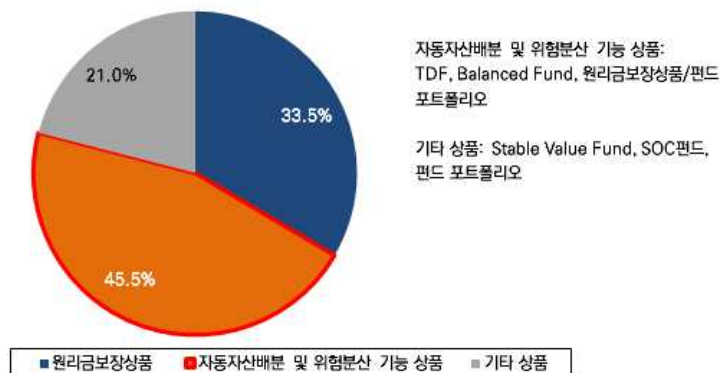
## 2. 자산배분 및 위험분산 기능 선호 큰 편

◎ TDF, Balanced Fund와 같이 자동 자산배분 및 재조정 기능이 있는 펀드와 안전 자산(원리금보장상품)과 위험자산(펀드)에 분산하는 포트폴리오의 선택 비중은 45.5%로, 그 외 펀드와 포트폴리오 상품 선택 비중(21%)보다 뚜렷하게 높았음.

— 생애주기에 따라 위험자산 비중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TDF는 응답자의 16.6%, 정해진 원칙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고 자산가격변동 등을 감안해 자산배분 비율을 재조정하는 Balanced Fund는 응답자의 14.9%,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에 분산하는 포트폴리오는 응답자의 14.0%가 선택해, 이 상품들을 선택한 총 비중은 45.5%에 달했음.

• 반면 자동 자산배분 또는 위험분산 특성과 거리가 있는 포트폴리오와 펀드 상품(Stable Value Fund, SOC펀드)은 응답자의 21% 만 선택하여 선호도가 낮았음.

<도표 8> 자동 자산배분 및 위험분산 기능 상품 선택 비중은 45.5%



## 3. 적극적 운용·관리 성향/월소득 800만원 이상, TDF 및 BF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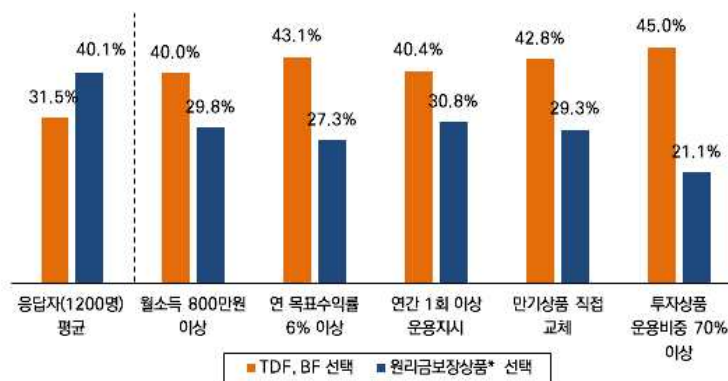
◎ 1) 월소득 800만원 이상 근로자와 더불어 2) 퇴직연금 목표수익률이 높을수록, 3) 운용지시 등 계좌관리에 적극적일수록, 4) 퇴직연금의 투자상품 운용비중이 높을수록 전형적인 자산배분 펀드인 TDF 및 Balanced Fund의 디폴트옵션 선호도가 높았음.

— 월소득 800만원 이상 근로자는 TDF 및 Balanced Fund를 디폴트옵션으로 선택한 비중이 40.0%로 평균인 31.5%보다 8.5% 포인트 높았음.



- 퇴직연금의 목표수익률로 연 6% 이상을 추구하는 근로자의 43.1%, 투자상품 운용비중이 70% 이상인 근로자의 45.0%가 TDF 및 Balanced Fund를 디폴트옵션으로 선택하겠다고 응답했으며, 이들이 원리금보장상품을 선택한 비중은 각각 27.3%, 21.1%로 전체 응답자 평균(40.1%)보다 현저히 낮았음.
- 퇴직연금 운용지시를 연간 1회 이상 시행하는 근로자와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의 교체 를 직접 시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각각 40.4%, 42.8%가 TDF와 Balanced Fund를 디폴트옵션으로 선택하겠다고 응답하였음.

<도표 9> TDF, BF의 디폴트옵션 선호도가 높은 속성 및 선택 비중



\*: 단일 상품 및 원리금보장상품 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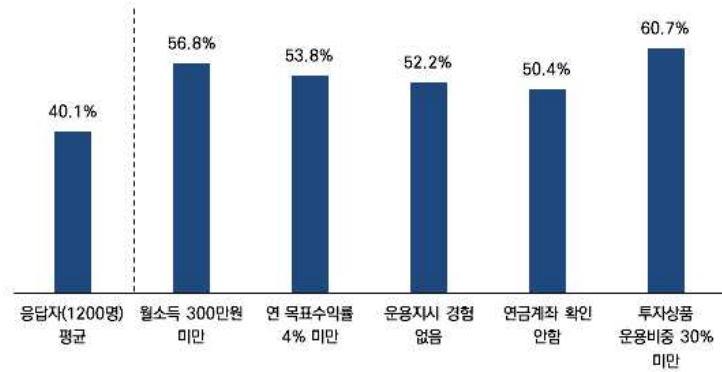
#### 4. 소극적 운용·관리 성향/월소득 300만원 미만, 원리금보장형 선호

◎ 1) 월소득 300만원 미만 근로자와 더불어 2) 퇴직연금 목표수익률 및 3) 투자상품 운용비중이 낮은 경우, 4) 운용지시 경험 및 5) 연금계좌 확인 경험이 없는 등 연금 운용 및 관리에 소극적인 경우는 디폴트옵션으로 원리금보장형을 많이 선택했음.

- 월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응답자 전체 평균(원리금보장형 단일 상품 및 포트폴리오)인 40.1%보다 뚜렷하게 높은 56.8%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디폴트옵션으로 선택하겠다고 응답했음.
- 퇴직연금 목표수익률이 연 4% 미만인 경우와 투자상품 운용비중이 30% 미만인 경우 등 운용성향이 보수적인 근로자는 디폴트옵션으로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절대적으로 많이 선택(각각 53.8%, 60.7%)하였음.

- 직접 운용지시를 실행한 경험이 없는 경우와 연금계좌 상태를 한 번도 확인해 보지 않은 등 연금 운용 및 관리에 매우 소극적인 경향을 보인 근로자도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디폴트옵션으로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비중이 매우 높았음(각각 52.2%, 50.4%).

<도표 10> 원리금보장형 상품\* 선호가 높은 속성 및 선택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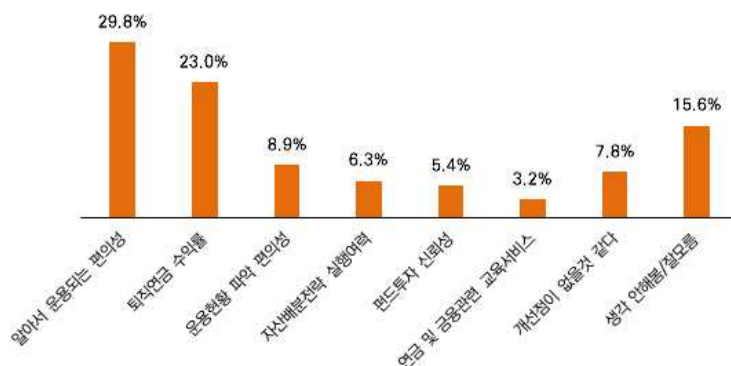
\*: 단일 상품 및 원리금보장상품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포함

## 5. 운용·관리 편의성 및 수익률 개선 기대

- ◎ 디폴트옵션 지정 및 실행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점으로는 ‘연금에 있어서 운용되는 편의성’과 ‘퇴직연금 수익률’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음.

- ‘알아서 운용되는 편의성’은 전체 응답자의 29.8%가 선택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퇴직연금 수익률’을 23% 선택하였음.

<도표 11> 디폴트옵션 지정 및 실행을 통해 기대하는 개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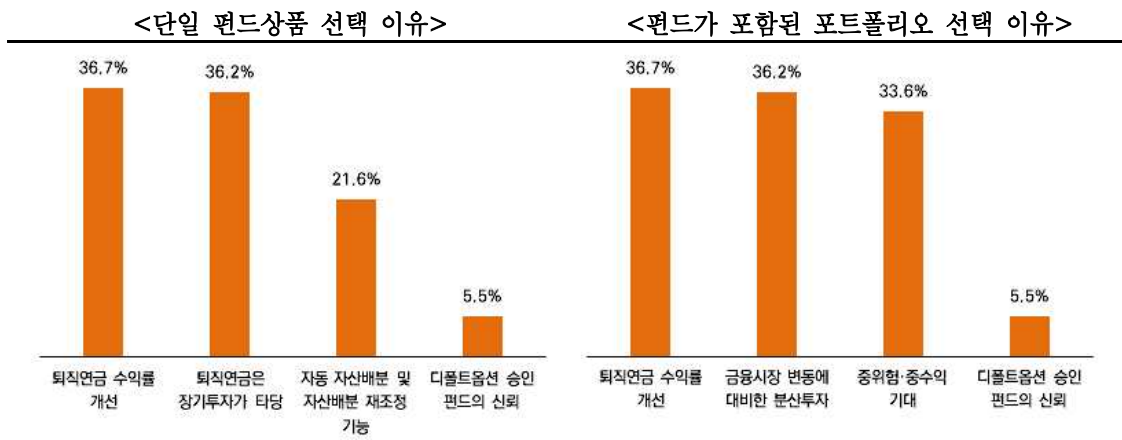
- ‘운용현황 파악의 편의성’과 ‘자산배분전략 실행여력’은 각각 3순위(8.9%)와 4순위(6.3%)의 선택 비중을 나타냈는데, 이 역시 스스로 퇴직연금을 운용 및 관리하는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에 따른 편의성 제고에 대한 기대로 볼 수 있음.

◎ **디폴트옵션으로 펀드 상품 및 펀드가 포함된 포트폴리오를 선택한 응답자의 경우 그 선택 이유는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이 가장 많았음.**

- 단일 펀드상품 또는 펀드가 포함된 포트폴리오를 디폴트옵션으로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경우 선택 이유로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각각 36.7% 씩 가장 많이 꼽았음.

- 이 외에 ‘퇴직연금의 장기투자 필요성(36.2%)’, ‘분산투자 목적(36.2%)’, ‘중위험·중수익 기대(33.6%)’ 등을 해당 응답자 중 30% 이상이 주된 선택 이유로 꼽았음.

<도표 12> 펀드 상품을 디폴트옵션으로 선택한 주된 이유는 수익률 개선



## IV. 결론

- ◎ DC형 퇴직연금 가입 직장인을 대상으로 디폴트옵션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를 시행한 결과, 디폴트옵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상품 선택 의향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은 5가지로 정리되었음.

###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선택에서 나타난 5가지 특징 〉

####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투자형을 더 선호한다

디폴트옵션 상품유형 선택 비중: 투자형(실적배당형) 60% / 원리금보장형 40%  
(조사대상 직장인의 DC형 퇴직연금 내 편입 비중(각각 36%, 64%)와 상반됨)

#### 자산배분 및 위험분산 기능을 갖춘 상품 유형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TDF, Balanced Fund, 원리금보장상품+펀드 포트폴리오 선택 비중 45.5%  
(원리금보장상품 33.5%, SVF, SOC펀드, 원리금보장상품 및 펀드 100% 포트폴리오 21.0%)

#### 월소득 800만원 이상 근로자 및 연금 운용·관리에 적극적인 경우 TDF 및 BF의 선호도가 높다

TDF 및 Balanced Fund 선택 비중 :  
월소득 800만원 이상 근로자 / 적극적 운용 및 연금계좌 관리 성향 40~45%  
(응답자 전체 평균 31.5%)

#### 연금 운용·관리에 소극적일수록, 월소득 3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원리금보장형 선호도가 높다

원리금보장형(단일 상품 및 포트폴리오) 선택 비중 :  
소극적 운용 및 연금계좌 관리 성향 / 월소득 300만원 미만 근로자 50~61%  
(응답자 전체 평균 40.1%)

#### 운용·관리 편의성 제고 및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다

디폴트옵션 지정 및 실행에 따른 기대 요인 선택 순위:  
1. 운용 편의성 제고(29.8%), 2.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23.0%), 3. 운용현황 파악 편의성 제고(8.9%)  
디폴트옵션으로 투자상품 선택한 이유:  
1.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36.7%), 2. 장기투자 필요성 / 분산투자 목적(36.2%)

- ◎ 퇴직연금 운용 및 관리에 소홀했던 근로자 및 퇴직연금자산 축적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젊은 근로자일수록 장기투자, 자산배분 및 투자위험 관리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디폴트옵션을 신중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음.
- ◎ 만기 경과 상품의 운용변경이 없을 때 사전지정한 디폴트옵션이 실행되는 데까지

최대 6주간의 대기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것은 퇴직연금 운용을 효과적으로 돕는다는 디폴트옵션 도입 취지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며, 디폴트옵션의 운용 편의성 제고를 기대하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운용관리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임.

● 디폴트옵션 제도가 장기투자 및 자산배분 중심의 운용방향 정립을 유도할 수 있으려면 디폴트옵션을 지정하는 당사자인 퇴직연금 가입 직장인들의 미흡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관련 교육 강화가 시급하게 요구됨.

－ 디폴트옵션 제도가 퇴직연금의 장기운용 방향이 잘 정립되도록 기능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가입 직장인들의 디폴트옵션 도입 취지 및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디폴트옵션의 도입 취지는 DC형 퇴직연금이 장기투자과 자산배분 및 투자위험 관리 원칙에 준해 운용되도록 선별된 운용방법을 통해 돕는 것이며, 이러한 기능을 충실하게 갖추도록 디폴트옵션을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 퇴직연금 가입자 이해의 핵심임.

－ 이를 위해 금융기관은 디폴트옵션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콘텐츠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교육 채널을 제공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디폴트옵션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미국, 호주 등에서의 퇴직연금의 장기운용성과, 자산배분 경향, 디폴트옵션 상품 활용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효과적인 채널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제공하려는 노력도 필요함.

## 평안한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5원칙

변화된 환경 속에서 자산을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평안한 노후를 준비하려면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과 다른 자산관리 원칙이 필요합니다.

### 01 글로벌로 분산투자 해야 합니다.

저성장 고령화로 인해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경우 기대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노후자산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글로벌 분산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 02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량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노후자산은 장기간 운용해야 하므로 사회·경제적 트렌드의 변화에 맞는 우량자산을 선별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

### 03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손실은 장기 투자로도 회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노후자산을 '자산군 간, 자산군 내, 지역별' 이렇게 3중으로 철저하게 분산해야 합니다

---

### 04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질병 및 사고는 노후자산의 형성을 막고 소진을 앞당기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보장성 보험 등을 통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

### 05 적립에서 인출까지 통합적 관점에서 운용되어야 합니다.

길어진 수명과 낮아진 금리는 노후자산 관리에 있어서 새로운 생각을 요구합니다. 자산규모보다는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관점을 가져야 하며, 자신에게 맞는 인출계획을 세우고 적립 시기부터 그에 맞게 노후자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

지금 한국사회와 가계는 큰 변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유례 없는 초저금리시대가 도래하면서 자산운용방식에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저성장과 고령화로 연금자산관리의 중요성은 커졌습니다.

투자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는 고객의 평안한 노후에 기여한다는 미래에셋그룹의 비전 하에 투자와 연금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연구,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는 투자와연금리포트를 통해 투자 및 연금 분야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 리포트 지난 호

... 이전 생략...

- [45] 변액연금의 진화와 노후자산관리, 2019.12
- [46] 밀레니얼 세대, 新투자인류의 출현, 2020.7
- [47] 5060 세대의 의료비 지출 및 보험보장 실태, 2020.9
- [48] 변액보험 펀드 수익률 분석 및 시사점, 2020.11
- [49] FAANG을 넘어 BBIG로, 2020.11
- [50] 저금리·장수시대의 도래와 美 연금시장의 대응, 2020.12
- [51] 5가지 키워드로 본 밀레니얼 세대의 투자와 미래, 2020.12
- [52] 코로나19가 가져온 퇴직연금 시장의 5가지 변화, 2021.11
- [53] MZ세대의 은퇴인식과 퇴직연금 운용 트렌드, 2021.12
- [54] 늦어지는 은퇴, 생애주기수지 적자에 대비하라, 2022.3
- [55] 적립금운용위원회와 IPS 도입, DB 적립금 운용을 리셋하다, 2022.4
- [56] 은퇴준비를 위한 인출계획 수립과 인출계획서 활용, 2022.9

투자자산운용리포트는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 홈페이지([investpension.miraeasset.com](http://investpension.miraeasse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의 저작물이므로 사전 동의 없이 무단전재·복제를 금지합니다.

보고서 내용을 인용·전재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또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으로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